

고창, 갯벌 관광 중심지로 만든다

해수부 공모 어촌개발사업 선정 5년간 100억원 투입 심원면 갯벌 관광 인프라 확대...소득 증대 사업 개발

고창군이 오는 2021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해 람사스습지와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에 자리한 갯벌을 중심으로 관광 어촌 가꾸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은 람사스습지와 생물권보전의 핵심에 있는 심원면 갯벌의 관광 인프라를 크게 늘려 어업과 유통·관광이 집적된 특화사업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9일 고창군에 따르면 심원면 만물마을

이 최근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2018년도 어촌개발사업'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국비와 지방비 등 모두 100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2021년까지 지역 특성에 맞는 어촌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어촌 개발은 마을 생태 숲 조성, 만물문화방 등 기초생활 기반 조성, 지역 특산물 판매와 로컬푸드 판매장 건설 등 소득 증대 사업이 중점적으로 펼쳐진다. 심원면 두어마을은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인근 하전마을 역시 '어촌특화발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기도 하다.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은 어촌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수산물과 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두어마을은 '자연을 배우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힐링 두어마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문가의 조언을 거쳐 갯벌체험장과 로컬푸드 판매장·식당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가공하는 공장을 설립하고 마을 경관을 개

선하는 '마을 가꾸기 사업'도 펼친다. 하전마을도 '특화발전운영협의회'를 만들어 수산물의 가공·유통·마케팅을 결합해 6차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다. 심원면은 청정한 바다와 갯벌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천일염, 조개, 뱀장어, 복분자, 오디 등 특산물이 풍부하지만 관광기반과 문화·복지 시설이 열악해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기반과 관광기반시설을 늘려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해 살기 좋고 활력 넘치는 어촌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고훈석기자 ghs@kwangju.co.kr

“맑고 푸른 숲 함께 지켜요”



고창군, 산불조심 캠페인

고창군이 봄철 산불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창군은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선운산도립공원에서 산불예방을 위해 방문객들에게 홍보전단지(119 또는 고창군청(063-560-2603)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를 배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사진> /고창=고훈석기자 ghs@kwangju.co.kr

고창군 관계자는 "논·밭두렁 소각 시 발생하는 산불이 30% 이상일 만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은 함부로 소각하지 말고 읍면사무소에 공동소각이나 수거를 요청해야 한다"면서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119 또는 고창군청(063-560-2603)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사진> /고창=고훈석기자 ghs@kwangju.co.kr

“군산 일자리 늘려라”

1만3000명 창출 목표치 공식 공공근로 등 다양한 사업 추진

군산시는 “올해 일자리 1만3000명 창출 목표치를 지역 고용네트워크(www.reis.or.kr)에 공시했다”고 9일 밝혔다.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자신의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목표와 대책을 공표·추진하고, 중앙정부는 그 대책을 적극 지원해 성과를 확인·공표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대책이다. 군산시는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한 1만 3000명을 목표 인원으로 설정했으며 모든 부서가 일자리창출을 위해 매진할 계획이다. 특히 민선6기 핵심공약인 ‘일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기업 및 사회적일자리 창출 등 10개의 세부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16년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가동 중단 및 구조조정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목표인원 대비 88%인 1만1442명을 달성했다.



어르신, 카네이션에 웃음꽃

김준성 영광군수는 어버이날을 맞아 경로당과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해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영광=이종훈기자 jylee@kwangju.co.kr

김준성 영광군수는 어버이날을 맞아 경로당과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해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영광=이종훈기자 jylee@kwangju.co.kr

생활 속 위험요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고창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고창군은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고창군은 ‘안전신고’를 통해 안전위험 요소 개선에 기여하거나, 안전문화 확산에 공로가 큰 주민 등 개인별 안전신고 참여도 점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고창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라는 휴대전화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맨홀 파손, 도로 포트, 보도블럭 파손 등 일상 생활 속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안전위험 요소를 쉽게 신고할 수 있다. /고창=고훈석기자 ghs@kwangju.co.kr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안전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7일 이내 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각종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며 “신고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와 함께 포상금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고훈석기자 ghs@kwangju.co.kr

순창군, 읍내 주차난 해소 나서

공영주차장 6개소 210면 조성

순창군이 읍내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6개소 210면을 추가 조성한다. 공영주차장이 들어서는 지역은 터미널 주변도로와 중앙도로 주변, 군립도서관 앞 도로, 시장주변, 군청 후문 도로 주변, 순창읍교회부근 옥천로 주변이다. 이 지역은 평소 교통량이 많고 관공서와 상가 등이 밀집해 있어 주차난이 심한 구간으로 꼽힌다. 특히 순창읍 자동차 등록대수는 5017대로 지난 10년 동안 153%가 증가한 반면 공영주차장은 최근 2년 동안 조성한 7개를 포함해 14개소 789면에 불과해 주차장 추가 조성 여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총 38억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그동안 읍민들로부터 공영주차장 증설 여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은 물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난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영근기자 jyg@kwangju.co.kr

순창군, 역사문화 탐방로 ‘선비의 길’ 조성

훈몽재~김병로 선생 생가

올 연말까지 5km 복원

조선의 대유학자인 하서(阿西) 김인후(1510~1560) 선생이 전북 순창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거닐었던 길이 올 연말까지 복원된다. ‘선비의 길’로 이름 붙여진 이 길은 쌍치면 둔전리에 있는 훈몽재(訓蒙齋)에서 북쪽면 하리의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까지의 5km 구간이다. 훈몽재는 하서가 1548년에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부인의 고향인 순창 쌍치면에 지은 학당이다. 현재도 전통예절과 유학을 공부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구간에는 송강 정철의 친필이 새겨진 바위, 하서가 은거했던 낙덕정, 대법원의 개인연수관 등이 있다. 순창군은 16억원을 들여 현재 길이 없는 1.2km 구간은 새로 길을 내고 걷기 편하게 나무데크 등을 놓을 계획이다.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일부 구간은 황토길로 정비하고 길 주위에는 이팝나무도 심는다. 지난해 공사를 시작해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조선시대 선비의 기개를 느끼며 사색하는 길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인근의 내장산, 산림박물관 등과 연계해 조선 유학과 관광이 결합한 새로운 문화유산 탐방길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영근기자 jyg@kwangju.co.kr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업용지 / 주택 / 투자

1.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국도변 1,118㎡(339) 상가, 사무실, 커피숍 최적지(신주택/구창고) 매 5억9천
2. 나주시 산포면 소재지 2차선 도로변 슬라브주택(2001년 준공) 99㎡ 공장198㎡ 대지823㎡ 투자유망 매 6억9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2차선도로변 계획관리지역 남향 2층슬라브주택 대지 655㎡ 건물 169㎡ 점포증축가능 매 3억3천만원
4. 나주시 세지면 소재지 상가 및 주택 대지 752㎡ 식당 175㎡ 주택 83㎡ 주차장 양호 매 3억5천만원
5.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 2,187㎡ 주택 96㎡ 공장75㎡ 점포26㎡ 매 2억원
6. 나주시 세지면 통곡리 대지 및 전 2,940㎡ 슬라브주택 99㎡ 부속 건물 66㎡ 신축5년경과 매 2억5천만원
7. 나주시 성북동 대지 및 전(2층주택 상가포함) 3,049㎡ 나주시내 중심지 2차선도로변 2층주거지역 상가 빌라 원룸 요양시설적합 축합마트 현대아파트매 매 19억9천만원

농지 / 투자

1.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배과수원 14,870㎡ 혁신도시인근 계획관리 생산관리 매 25억원
2. 나주시 금천면 월곡리 배과수원 및 대지 8,965㎡ 슬라브주택, 저운창고 매 8억5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전 3,300㎡ 2차선도로변코너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근거리 투자유망 매 8억5천만원
4.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잡종지 8,311㎡ 보전관리지역 2차선도로 접혁신도시근거리 매 5억8천만원
5.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전 18,838㎡ 하우스농사중 2차선도로변 농림지역 22억원
6.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전 배과수원 5,655㎡ 4차선국도변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인근 투자유망 매 18억8천만원
7.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면사무소 뒷 8,495㎡ 2차선도로변 창고 농산물가공적합 매 2억2천만원
8. 나주시 대호동 전 5,068㎡ 도시지역, 자연녹지 투자유망 매 2억9천만원

나주시 남도공인중개사
이준상 T.010-9510-115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판선·전원주택지

- 함평군 송봉면 월천저수지와 바다인근 대지 1197㎡ 4300만원
- 남평읍 우산리 대지 774㎡ 광주에서 15분거리 6700만원
-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땅 32454㎡ 판선과 농장적합 5억
-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바닷가 전망좋은 땅 6337㎡ 3억9천
- 신안군 지도읍 내암리 13662㎡ 농장·전원생활용 1억원
- 보성군 회천면 전망좋은 바닷가 5360㎡ 매도 4억9000
-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임야 40만㎡ 판선·전원주택·별장 등 다용도 개발 적합 매도 12억(운조루 유통전시판매)
- 장성군 북이면 면사무소에서 3km, 입암산길 전과산 78197㎡ 한옥마을, 전원주택지 적합 경관·교통중용 11억

투자·매도·교환

- 월산동 재개발가능지 대지 195㎡ 주택 63㎡ 8800만원
- 장성군 남면 소재지 그린벨트 김나무밭 10958㎡ 투지에 양호 6억8천
- 독립섬 56233㎡ 신안군 임태면 새천년대교 인근 3억5천
- 소촌동 자연녹지 1530㎡ 투지에 양호할 10억천
- 유통 상업지 331㎡ 상가·유흥 등 적합 매도 4억3천
- 월산동 보라아파트부근 상가H층 65㎡ 다용도임 6300만원
- 함평군 해보면소재지 주거지역 전 4329㎡ 매도 2억천
- 대인동 상업지 787㎡ 주상복합건물 적합 14억3천
- 서구 마북동 2251㎡ 다용도 건물 신축 적합 21억
- 담양군 수북면소재지 7971㎡ 소형아파트 적합 15억2천
- 화순읍 북송아·매실·김나무농장 40059㎡ 매도 10억5천
- 충장로5가 상업지 490㎡ 다용도 가능 7억7천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3273㎡ 아파트 요양시설 적합 4억5천
-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833㎡ 창고·공장용 1억원

상가건물

- 월산4동 새마을금고부근 2층식당건물 대지 226㎡ 매도 4억2천
- 서구 교동소재지 대지 1657㎡ 건평 7768㎡ 요양병원용 적합 49억
- 월산동 대지 126㎡ 건물 297㎡ 은행 4억 매도 6억6천
- 월산동 농성초건너편 6세대 대지 206㎡ 건평 328㎡ 3억6천
- 월산동 윤진각부근 대지 160㎡ 건물 419㎡ 은행2억 매도 5억3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신안,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비금도내에 있는 섬 (팻섬)
- 향후 개발가치 100억
- 분할 / 지분매매 가능
- 타 부동산과 교환가능
- 매매 - 7억 (평당5만원)
- 주인직매
- H.010-3605-50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스케이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